

몇 년 전에 상하이에 갔는데, 유즈 뮤지엄Yuz Museum이란 곳에 토미 그뢴룬트Tommi Grönlund와 페테리 니수넨Petteri Nisunen이라는 핀란드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더라. ‘물질의 흐름’이란 제목이었는데, 유튜브에서 ‘Flux of Matter’를 검색하면 볼 수 있어. 눈으로 봐야 이해될 테니, 노트북에서 지금 찾아보자.

웁지. 기다란 널빤지 같은 판 위에 작은 쇠구슬이 수천 개나 있네. 보다시피 판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시소처럼 아래위로 한 5cm나 되려나, 아주 조금 움직이지? 그랬더니 구슬들이 하나둘 이렇게 스르륵 내려오잖니. 그러다 조금 더 있으면, 결국 수천 개가 와르르 다 내려오지?

나는 녀를 잃고 이 작품을 한참이나 보다가 무릎을 탁 쳤어. 시장의 원리! 시장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다르지 않아. 요런 조그마한 차이로 와르르 몰리고 줄 서는 거야. 큰 차이가 아니야, 조그만 차이로 또 와르르 몰리지.

놀랍게도 사람들이 무언가를 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아주 사소해. 그게 소문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와르르 몰려와. 그 사소해 보이는 작은 차이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게 마케터의 일이야.

